

“내년에는 투심 패스트볼 추가”

류현진, 부상 복귀 후 시즌 마무리 “몸 상태만 생각하면 100점 만점에 만점”

부상에서 복귀한 첫 해를 조심스럽게 마무리한 류현진(30·LA 다저스)이 올 시즌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포스트시즌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아쉬워했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올 시즌은 류현진에게 재기의 한해였다. 2015년 5월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이후 2년간 재활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스프링캠프에서 경쟁 끝에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했다. 시즌 풀타임을 소화하며 25경기에서 126%이닝을 던진 류현진은 5승 9패 평균자책점 3.77의 성적을 거뒀다. 2013, 2014년에 미치지 못한 것만 회복이 힘들다는 어깨 부상을 털고 3년 만에 풀타임 선발을 소화하며 내년 시즌 활약을 한층 기대했다. 다만 경쟁에서 밀려 포스트시즌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다저스는 다비전시리즈 챔피언십시리즈를 거쳐 월드시리즈까지 올랐지만 류현진은 로스터에서 빠져 가을야구를 함께하지 못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 나가면서 목표로 잡았던 것을 조금은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한다. 끝날 때까지 팔에 문제 없이 시즌을 치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몸 상태만 생각하면 100점 만점에 만점이다. 부상없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상없이 1년을 치렀다”고 자평했다. 다만 “포스트시즌 로스터에 들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했다. 시즌 끝까지 부상이 없었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워낙 우리 팀 선발 투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인정해야할 부분은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내년 시즌을 마치면 자유계약선수



미국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을 마친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FA) 자격을 얻는 류현진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일 것 같다. 겨울 동안 준비를 잘해서 미국에 처음 나갔을 때 같은 성적을 올리면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첫 패스트볼이 생각보다 잘 들어갔다. 내년에는 투심 패스트볼도 던질 생각”이라며 “내가 구속을 앞세우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에 변화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 한 시즌을 마친 소감은? “올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 나가면서 목표를 잡았던 것을 조금은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한다. 시즌 끝날 때까지 팔에 문제 없이 시즌을 치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부상 복귀 이후 첫 시즌이었는데

성적에 점수를 매긴다면? “몸 상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시즌을 치르면서 팔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부상없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상없이 1년을 치렀다.”

▲ 비시즌 계획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와줬던 코치님이 도와줄 것이다. 같이 열심히 운동해서 내년도도 안 아프고 화가 많으면 좋을 것 있도록 준비하겠다.”

▲ 내년 시즌에 대한 욕심은? “당연히 올해 수술 이후 첫 해를 무사히 보내서 만족한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일 것 같다. 겨울 동안 준비를 잘해서 미국에 처음 나갔을 때 같은 성적을 올리면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하겠다.”

/뉴시스

KGC 오세근, 프로농구 1라운드 MVP

‘20·20’·트리플더블 달성

안양 KGC 오세근(30·200cm)이 2017~2018 프로농구 1라운드 최우수 선수(MVP)가 됐다. KBL은 9일 1라운드 MVP 투표에서 오세근이 총 유효 투표수 101표 중 81표를 획득, 14표에 그친 서울 SK 에너제인즈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MVP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 시즌 오세근은 외국인 선수와 같은 활약으로 팀의 골밑을 책임지고 있다. 1라운드 9경기 동안 평균 34분 42초를 뛰며 20.4점(국내 1위) 10.0리바운드(국내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인천 전자랜드와 경기에서는 28점 20리바운드를 달성하며 역대 국내선수 두 번째로 ‘20·20’을



달성했다. 지난 2일에는 부산 KT를 상대로 14

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개인 두 번째이자 시즌 2호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약으로 오세근은 선수 효율성 지수(PIR)에서도 1라운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여줘 국내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3라운드 MVP를 포함해 개인 통산 4번째 라운드 MVP에 오른 오세근의 활약은 2라운드에도 이어지고 있다. 8일 2라운드 첫 경기인 전자랜드와 경기에서 30점 12리바운드를 맹활약을 펼쳤다. 팀은 어렵게 승리를 놓쳤지만 오세근의 활약은 빛났다. 오세근에게는 10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전주 KCC와 홈경기에 앞서 기념 트로피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뉴시스

어반자카파,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8개차트 1위

보컬그룹 ‘어반자카파’가 11월 컴백 대란에서 인기 아이돌들을 제치고 승기를 잡았다. 어반자카파가 8일 발매한 신곡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가 9일 오전 기준 멜론, 벅스, 엠넷 등 주요 음원사이트 8개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널 사랑하지 않아’ 이후 ‘목요일 밤’, ‘혼자’에 이어지는 세번째 싱글 타이틀이다. 멤버 박용인이 프로듀싱한 곡으로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현재의 감정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가사가 인상적인 서정 발라드다.



홍성 보컬그룹 어반자카파

소속사 메이커스 엔터테인먼트는 “심플한 편곡으로 아련한 감정을 표현했으며, 그로 인해 대중들 또한 상처를 위로 받고 추억을 품을 수 있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2009년 ‘커피를 마시고’로 데뷔한 어반자카파는 ‘널 사랑하지 않아’, ‘목

요일 밤’ 등으로 주요 음원차트를 석권하며 ‘음원강자’로 통하고 있다.

/뉴시스

방탄소년단, ‘러브 유어셀프’ 137만장 판매... 최다 판매량 기록 경신

한류그룹 방탄소년단이 공인 음반 집계사이트 가온차트 누적 집계 사상 최다 판매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가온차트가 9일 발표한 2017년 10월 앨범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9월 18일 발매한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는 총 137만 6915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러브 유어셀프 승 허’는 이미 지난달 120만 3533장의 판매량을 기록, 가온차트 집계 역사상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음원 위주로 재편된 최근 가요계에서 앨범 판매량 100만장을 넘기는 그룹은 ‘엑스’ 정도에 불과하다. 엑스는 지난 7월 발매한 정규 4집 역시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하며 엑스 ‘워드러플’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바 있다. 엑스는 가수 김건모 7집, 그룹 ‘god’ 4집 등이 발표된 2001년 이후 12년 만에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는데 방탄소년단 역시 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와 함께 ‘러브 유어셀프 승 허’는 해외에서도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 6주 연속 진입했다. 특히 한국 가수 최초로 4주 연속 빌보드 ‘핫 100’과 ‘빌보드 200’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범죄도시’ 10월 韓 영화 관객 1297만명 역대 최다

올해 10월 한국영화가 역대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10월 한국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영화는 1297만명을 불러모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이전 10월 한국 영화 최다 관객수는 2012년에 기록

한 1017만명이었다. 10월 전체 관객수 또한 2004년 집계 이후 최초로 2000만명을 넘어섰다(2159만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8%(약 443만명) 증가한 숫자다. 올해 이전 10월 최다 관객은 지난해 1715만명이었다. 10월 흥행은 ‘범죄도시’가 이끌었다. ‘범죄도시’는 한 달 동안 596만

명을 끌어모았다. 이 숫자는 10월 한국영화 관객수의 45%에 해당한다. ‘남한산성’(382만명) ‘킹스맨:골든 서클’(321만명) ‘보르:라그나로크’(251만명) ‘아이 캔 스피크’(184만명) ‘지오스톱’(100만명) 등이 고르게 흥행한 것도 10월 역대 최다 관객 달성에 힘이 됐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